

▶ 하나금융투자 4차산업 포트폴리오 종목별 수익률 현황 (5/24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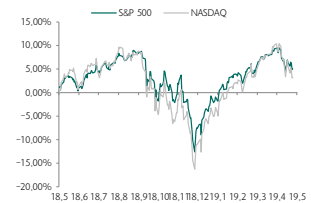
편입 종목	주간수익률(%)	PER(배)	ROE(%)	매출액 성장률(%)	EPS 성장률(%)	실적발표일
애플 (AAPL.US)	(5.3)	15.6	58.5	(3.2)	(10.0)	2019-07-30
아마존닷컴 (AMZN.US)	(2.4)	49.1	25.8	18.1	94.4	2019-07-25
알리바바 (BABA.US)	(8.6)	23.4	16.4	35.8	37.4	2019-08-22
바이두 (BIDU.US)	(10.8)	20.1	6.9	10.0	(48.9)	2019-07-30
페이스북 (FB.US)	(2.3)	21.0	22.9	24.3	16.5	2019-07-30
알파벳 (GOOGL.US)	(2.6)	20.5	16.2	19.5	33.2	2019-07-25
IBM (IBM.US)	(1.5)	9.5	66.1	(3.0)	41.3	2019-07-17
마이크로소프트 (MSFT.US)	(1.4)	27.5	43.0	13.3	114.0	2019-07-18
엔비디아 (NVDA.US)	(7.3)	27.9	27.7	(6.1)	(20.8)	2019-08-15
텐센트홀딩스 (00700.HK)	(8.7)	29.3	24.5	26.8	19.2	2019-08-14
삼성전자 (005930.KS)	3.6	12.5	9.0	(8.2)	(48.9)	2019-07-08
넷플릭스 (NFLX.US)	(0.0)	86.9	23.6	27.8	55.5	2019-07-16
소프트뱅크 (9984.JP)	(0.0)	8.2	13.5	1.6	(18.1)	2019-08-06
세일즈포스닷컴 (CRM.US)	(0.0)	57.6	14.5	21.3	0.1	2019-06-04
인텔 (INTC.US)	(0.7)	10.3	24.2	(2.7)	(7.2)	2019-07-25
평균	(3.2)	28.0	26.2	11.7	17.2	

주: PER, ROE, 매출액, EPS 성장률은 2019년 Bloomberg 조정 실적 전망치 기준(*일부 종목은 회계기준에 따라 차기 회계연도 전망치)

▶ 주간 미국 시장 동향

- 주초 미국 증시는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며 하락 출발.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반도체 제조 및 장비 기업들 약세. 주 후반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인프라 투자 관련 회담이 파행되며 산업재, 소재 업종 약세.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우려 확산되며 증시 하락세 지속. 주말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함에 투자심리 회복시키며 상승 마감

주요 주가지수 수익률 추이



4차산업 주요 종목 주간 뉴스

1) 인텔

인텔 주가 추이 코멘트

상장 국가

미국

섹터

반도체

시가총액(십억달러)

199.54

- 최근 1개월간 25.1% 하락
- 신인 CEO 및 CFO(퀵컴에서 이직) 취임 이후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내용 보수적 전개
-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 성장에 대해 기대감 낮아지는 중
- 서버 수요 회복 시그널이 없고 경쟁사인 AMD가 CPU 및 GPU 시장에서 인텔의 점유율 훼손할 가능성 높음
- 또한 핵심 프로세서에서 4번째로 보안 결함(좀비로드) 발견되어 주가 조정 유발

최근 주가 추이



2) 넷플릭스 넷플릭스로 인해 칸의 풍경이 변화됨

상장 국가	미국
섹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시가총액(십억달러)	154.95
	• 칸국제 영화제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는 필름마켓으로 영화 관계자들이 영화, 프로젝트 등을 사고파는 곳 • 칸 필름마켓은 현재 명실상부 세계 최대 규모이며 2018년에는 프로듀서, 배급자, 영화제 관계자 등 12,411명이 참가했음. • 올해도 114개국의 12,000명 가량이 참가하고 있지만 마켓 분위기는 사람이 줄고 조용해졌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평 • 넷플릭스, 아마존과 같은 대형 구매자들이 영화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모든 종류의 콘텐츠를 휩쓸어가는 것이 원인이라는 해석 • 마켓 부스의 성격도 달라지고 있는 중. 넷플릭스가 장르 영화를 선호하다보니 올해 처음 '판타스틱7'이라는 특별 세션을 마련.

최근 주가 추이



3) 엔비디아 실적 시사점

상장 국가	미국
섹터	반도체
시가총액(십억달러)	88.40
	• 분기 매출 저점 통과. 컨센서스 대비 1Q 상회, 2Q 부합 • 게임용 GPU 매출 QoQ 성장세 회복. 분기 매출 기준 바닥권 탈피. • 데이터센터 매출 부진. 전방산업의 서버 수요에 대해서 엔비디아 매니지먼트의 관점은 여전히 보수적 • CFO는 1월 투자자미팅에서도 <데이터센터용 시장이 프로젝트 베이스이므로 매출이 들쭉날쭉하다(bumpy)>라고 언급 • 엔비디아의 실적 키폴은 반도체 중소형주보다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투자 판단에 방향성 제시 • 전방산업에서 모바일과 PC는 수요 회복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으나 서버의 시그널은 아직 미약 • 하반기 서버의 수요에서 기대할만한 것은 전통적인 계절성 (상저하) 또는 기저효과(2018년 12월~2019년 상반기 대비 개선 가능성) • 무역갈등의 외중에 전방산업의 수요 예측이 더욱 어려워졌으나, 엔비디아가 3개월 전 대비 1) 게임용 GPU 시장 수요와 2) 하반기 전사 기준 매출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자신감을 내비치며 반도체 업황의 저점 통과 가능성을 드러냈다는 점은 긍정적

최근 주가 추이



4)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가 게이밍 사업에서 협업

상장 국가	미국
섹터	IT
시가총액(십억달러)	967.35

-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가 게임을 위한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과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파트너십을 발표.
- 지난 15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 판매를 통해 경쟁해 왔으나, 소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경험을 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큰 게이밍 산업의 위협을 막기 위해 협업하는 것으로 보임.
- 해당 내용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팀도 몰랐던 사실.
- 두 회사간의 협업의 가장 큰 이유는 구글의 'Stadia'인 것으로 판단 됨. 구글은 유튜브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브라우저와 모바일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으며 양사에게 위협을 줄 수 있음.
- 소니는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 'PlayStation Now'를 수년간 제공해 왔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음.
- 양사의 협업을 통해 단일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가 출시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반 하드웨어 서버는 동일할 수 있어 향후 개발사들이 양사 게임개발을 쉽게 만들 수 있음.
- 이 외에 닌텐도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가 많이 근접해지고 있는 소식이 많아지고 있어 닌텐도에 대한 루머도 나오고 있는 중.
- 현재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위해서 EA가 'Project Atlas'를 개발 중이며, Nvidia도 자체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GeForce Now'를 보유하고 있다. Valve도 Steam Link를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려 하고 있음.

최근 주가 추이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19년 5월 27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는 2019년 5월 27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